

2026 vol. 586 SUMMER

RedCross



혼디 드렁, 모다 드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편

적십자의 탄생, 그 시작을 기억하는 날
명장의 레시피, 나눔의 온기가 되다
K-인도주의를 세계로 전하다

국민이 묻고 적십자가 대답하다

혈액사업 편



헌혈의집

Q1

**헌혈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혈액을 대가 없이 기증하는 생명 나눔 활동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혈액을 인공 제조하기 힘들고 장기 보관도 어려워, 수혈에 필요한 혈액은 오직 헌혈로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술·응급 처치·만성 질환 치료 등 매일 수많은 생명이 헌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Q2

**헌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헌혈은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나뉩니다. 전혈헌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방식으로 320ml와 400ml 두 종류가 있으며, 헌혈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분헌혈은 혈소판·혈장 등 필요한 성분만 분리 채취하고 나머지를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재헌혈 간격이 전혈헌혈보다 짧습니다.



Q3

**헌혈 당일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헌혈의집 방문 후 본인 확인과 동의서 작성을 마친 후, 혈압·맥박·체온·빈혈 여부 등 기초 건강 검사와 의사 문진을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혈 후에는 휴식실에서 음료와 간식을 제공받으며 쉬고 귀가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헌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Q4

**헌혈한 혈액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환자에게
전달되나요?**

A. 헌혈된 혈액은 즉시 혈액원으로 이송되어 감염병 검사와 성분 제제 과정을 거칩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혈액은 적혈구·혈소판·혈장 등으로 분리 제조되어 냉장 또는 냉동 보관된 뒤, 각 병원의 요청에 따라 공급됩니다. 헌혈에서 수혈까지의 전 과정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담당합니다.



Q5

**헌혈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만 16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헌혈 종류에 따라 연령·체중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일부 질환, 특정 약물 복용, 해외 체류 이력 등에 따라 헌혈이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용 약이나 건강 상태를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한 헌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Q6**헌혈 후 재헌혈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전혈헌혈은 최소 8주가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성분헌혈은 2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 간격은 헌혈 후 혈액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 기준입니다. 종류별 헌혈 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헌혈자 본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7****헌혈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헌혈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당일에는 가벼운 식사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후나 공복 상태에서는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편안한 복장으로 방문하면 채혈이 한결 수월합니다.

**Q8****헌혈한 혈액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혈액 성분별로 보관 기간이 다릅니다. 적혈구제제는 냉장 보관 기준 35일, 혈소판제제는 상온 진탕 보관으로 5일, 혈장제제는 냉동 보관 시 최대 1년입니다. 특히 혈소판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 수급 공백이 생기기 쉬우므로 상시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Q9**대한적십자사는
혈액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A. 대한적십자사는 정부로부터 혈액 사업을 위탁받아 전국의 헌혈의집과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혈·검사·제제·보관·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며, 엄격한 안전 기준으로 혈액 품질을 보장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264만 건의 헌혈이 이루어졌으며, 수혈용 혈액은 전년대 약 6.1% 증가해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되었습니다.

Q10**헌혈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헌혈 후에는 헌혈증서가 발급되며, 본인 또는 가족의 수혈 시 혈액 수수료 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혈 전 기초 건강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도 됩니다. 가까운 헌혈의집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또는 헌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O Friends란?

ABO Friends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기 헌혈자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만 16세 이상으로 최근 1년 내 헌혈 경험이 1회 이상인 분이라면 전국 혈액원·헌혈센터·헌혈버스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연 1회 특별 혈액검사(간기능·콜레스테롤 등)와 헌혈 주기 알림 문자, 문화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참여는 동·하절기 혈액 수급 안정에도 큰 힘이 됩니다.



CONTENTS

RC Q&A 02

국민이 묻고
적십자가 대답하다-헌혈사업 편

나의 적십자 이야기 05

여러분의 '적십자'를 들려주세요



방방곡곡 RC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편 06

혼디 드렁, 모다 드렁



RC 봉사회 :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10

섬 곳곳에 스민 나눔의 사계절



RC 리포트 12

적십자의 탄생,
그 시작을 기억하는 날

RC 리포트 14

명장의 레시피,
나눔의 온기가 되다



RC 해외 리포트 16

대한적십자사가 일궈낸
아시아의 기적,
'K-재난대비현장'을 가다

결식아동 돕기 캠페인 18

방학이 두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RC 스토리 20

K-인도주의를 세계로 전하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22

받은 사랑,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RC 후원금 리포트 24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일상 속 RC 26

두통, 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RC와 떠나는 여행 28

제주에서는 더위도
쉬어 갑니다

RC가 말하는 인도주의 30

등불을 든 여성들,
적십자 인도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RC 뉴스 32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소식

나눔이 희망입니다 40

나눔을 함께 하는 사람들

RC 참여 코너 42

대한적십자사 여기 있습니다!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희망 소식

커버 스토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양진석 회장, 김경용·김옥신 부회장, 고경희 사무국장, 오우제 조직국장의 실제 인터뷰 사진과 제주의 풍경을 AI 이미지로 구현해 담았습니다.



채널 바로가기



웹진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RedCross

발행인 김홍국 편집인 박종술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홍보팀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전화 02-3705-3705

기획·디자인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여러분의 '적십자'를 들려주세요

<나의 적십자 이야기>는 봉사자, 후원자, 헌혈자, 수혜자 등
적십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참여형 코너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사연(500자 내외)과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참여 이메일** jkim3@enzaim.co.kr

1996년 처음 봉사활동에 나선 이후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학교 안전 봉사과 지역 돌
봄 활동을 이어오는 동안 딸 은정이가 함께 나눔을 실천해 주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전
달, 교통안전 봉사 등 은정이의 봉사시간도 2,000시간을 넘었고, 이제는 손자 광모까지 함
께하고 있습니다. 세 가족의 누적 봉사시간이 1만 시간을 넘는다고 하니 저도 놀랐습니다.
올해 세계 적십자의 날 기념식에서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
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박병훈 전북 남원시 | 참봉사회 회장



생업을 이어가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기부하는 후원자, 용돈을 모아 나눔을 실천
하는 남매를 보며 '여유가 없어서 후원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핑계였음을 깨달았습니
다. 그 마음에 힘입어 저 역시 정기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재난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달
려가는 봉사원들을 보며 자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후
원자와 봉사원, 도민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허수빈 제주 제주시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한 지 11년 2개월, 누적 봉사시간이 15,400시간을 넘었습니다. 포항
지진, 태풍 힌남노, 의성 산불 등 재해 현장마다 구호 손길을 이어왔고, 평소에는 지역 복지관
을 돌며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동안 이웃에게 더 전문적
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 사회복지 석사 과정을 시작했고, 이번 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 시작한 봉사였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박은선 경북 포항시 | 봉우리봉사회 | 포항협의회 부회장



방방곡곡 RC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혼디 드렁, 모다 드렁



제주지사

섬이 품은 나눔의 힘, '수눔음' 과 '김만덕 정신'으로 79년을 이어오다.

제주에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혼디 드렁, 모다 드렁(함께 들어, 모아 들어)'.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서로 손을 나누는 수눔음 문화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반세기 넘게 이어온 봉사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구 약 1%의 섬에서 전국 어느 지사보다 두터운 봉사의 역사를 써 내려온 제주지사의 오늘을 들여다봅니다.

제주 땅에 뿌리내린 적십자, 79년의 시작

1947년 5월 15일, '조선적십자사 제주지사'가 발족되었습니다. 그해 6월 본사로부터 지사 조직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지사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고, 발족 한 달여 뒤인 6월 17일에 이르러서야 제주시청 내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공포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로 개편·재조직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6·25전쟁 피난민 구호를 위해 제주적십자부녀봉사대를 조직했으며, 1955년에는 청소년적십자단이 도내



6개 학교에서 결성되었습니다. 1950년대 당시 제주는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제주지사는 1956년 제주적십자안과의를원을 개설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한복로 35 | 064-717-0900

수놓음 정신과 김만덕의 나눔, 제주지사의 두 뿌리

제주지사의 봉사 문화를 이해하려면 제주 공동체의 두 줄기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수놓음’ 정신입니다. 봉무원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직책에 관계없이 모두가 달려가고, 태풍 피해 복구 현장에서는 다른 단체가 철수한 뒤에도 끝까지 남아 마무리를 다합니다. 또 하나는 ‘김만덕 정신’입니다. 18세기 제주 거상(巨商) 김만덕은 흉년으로 굶주린 도민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아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제주지사는 이 정신을 봉사 문화의 근간으로 삼아 이어가고 있습니다.

4·3의 기억과 함께, 굶직한 이슈마다 현장을 지키다

제주의 역사는 상처 위에서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주 4·3이라는 비극 앞에서 제주지사는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연대와 지원으로 지역 사회의 치유 과정에 함께해 왔습니다. 1953년 동문시장 대화재 구호를 시작으로, 1959년 태풍 사라호 이재민 1만 2천여 명 구호, 2000년대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7차례 지원, 2018년 예멘 난민 신청자 의료지원, 2020년 코로나19 취약계층 구호품 지원까지, 굶직한 이슈마다 현장을 지켰습니다. 정태근 지사회장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지역사회 평화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제주지사 모두의 사명”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에 힘쓰고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위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주지사가 타 지사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1960년 제주지사 2층 건물 준공(1층 안과의원, 2층 지사사무소)



1964년 태풍 사라호 이재민 복구 주택 입소식



2018년 예멘 난민 신청자 식자재 지원



민·관 재난협력 강화와 희망풍차 결연의 온기

제주지사의 재난 대응 역량은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와 재난예방 및 긴급구호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과 재난대응 봉사회 결성을 통해 입체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재난구호 종합훈련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어 2025년에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민관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다시 한 번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읍·면·동 재난담당자와 봉사원 100여 명이 참여한 민·관 협업 회의를 처음 개최하며 현

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12년 출범한 희망풍차 결연사업은 위기가정·독거노인·조손가정·장애인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봉사원을 1대1로 연결하는 맞춤형 복지 플랫폼입니다. 이 사업은 봉사회도협의회의 연중 나눔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사옥 이전과 전국 교류 거점의 탄생

2026년 3월, 제주지사는 제주시 한복로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25㎡ 규모의 신사옥과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제주캠퍼스를 함께 개소했습니다. 재난구호물자 보관시설, 연수 시설, 안전교육 강습장, 봉사원실, RCY쉼터 등을 갖춘 이 공간은 봉사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꾼 자리이기도 합니다. 개소 이후 경기, 충남, 충북, 광주·전남, 부산 등 전국 적십자봉사회가 연수를 위해 제주를 찾고 있으며, 충청남도지사와는 2025년 6월 업무협약을 맺어 매년 상호 방문하는 정례 교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사는 신사옥 이전과 인재개발원 제주캠퍼스 개관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도주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봉사원 역량을 키우는 전문 봉사 생태계

제주지사는 봉사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1961년 전국 최초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 조직을 시작으로, 응급처치법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도민의 생명 안전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현재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수상 안전강사봉사회, 심리지원전문봉사회, 재난대응봉사회 등 전문 조직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955년 6개교에서 출발한 청소년적십자(RCY)는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청소년 인도주의 교육의 터전이 되어왔고, 전국 RCY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국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 생태계가 있었기에 제주지사는 언제나 가장 먼저 각종 활동 현장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봉사원을 마지막까지 예우하는 장례 지원

제주지사만의 특별한 전통 중 하나는 바로 ‘봉사원 관포 지원’입니다. 평생 인도주의에 헌신한 봉사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적십자 관포를 씌워 동료들이 직접 운구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제주지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예우로, 공로가 큰 봉사원에게는 최고의 격을 갖추어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명의의 장례(지사장)’를 치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마지막 순간까지 예의를 다하는 이 문화는 제주의 ‘수놓음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1947년 창립 이후 79년의 세월 동안 제주지사는 거센 태풍과 역사의 상처를 넘어 언제나 도민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과거 의인 김만덕이 기꺼이 전 재산을 내놓았듯, 제주의 적십자 봉사원들은 오늘도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땀방울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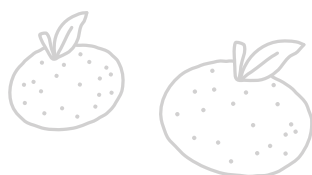
1980년대 제주지사 산악안전대 적설기 동계 훈련



취약계층 명절 장보기 사업



제주지사의 의인 장례식



RC 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섬 곳곳에 스민 나눔의 사계절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3천여 명의 봉사원이 섬 전체를 촘촘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서쪽 대정에서 동쪽 성산까지, 이들의
봉사는 계절을 따라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밥상에서 시작하는 나눔, 사랑의 어명출레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의 연중 사업 중 가장 많은 손길이 모이는 곳은 바로 ‘계절음식 나눔’입니다. 매년 11~12월이면 130여 명의 봉사원이 모여 김장김치를 담그고, 희망풍차 결연세대 400가구와 복지시설 등에 전달합니다. 준비부터 배부까지 전 과정을 봉사원들이 직접 도맡습니다. 봄철에는 제주시협의회가 토속음식인 마농지(마늘줄기 절임)를, 서귀포시협의회가 깍두기와 열무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의 입맛을 돋웁니다.

일상적인 돌봄은 단위봉사회가 이어받습니다. 매주 결연세대를 찾아가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랑의 어명출레(어머니의 반찬)’는 식사 지원을 넘어 홀몸 어르신 안부를 살피는 밀착형 돌봄입니다. 김옥심 도협의회 부회장은 “반찬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얼굴을 뵈고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어명출레의 진짜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마늘밭에서 묘역까지, 현장을 지키는 노란 조끼

매년 5월 마늘 수확 인력이 집중적으로 부족해지는 시기에 맞춰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합니다. 2026년 5월 18일에는 도협의회 봉사원 60여 명이 대정읍 일대 마늘밭을 찾아 고령 농업인의 수확을 거들었습니다. “대정은 우리나라 마늘 주산지입니다. 수확 시기에 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봉사원들이 내 일처럼 뛰어주니 농가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경희 봉사회 도협의회 사무국장(대정적십자봉사회)의 말처럼, 이 봉사는 섬 농촌의 생계와 직결된 실질적 지원입니다. 호국에 대한 예우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3년 5월 ‘1사1묘역 가꾸기 결연’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협의회는 설과 추석, 현충일을 앞두고 연 3~4회 임원 50여 명이 국립제주호국원을 방문해 묘역 비석 닦기 등 환경정화 활동과 헌화를 진행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섬의 품앗이, 3천여 명의 힘

“서귀포시에서 행사를 하면 제주시 임원들이 건너가서 돕고, 제주시에서 행사가 있으면 서귀포 임원들이 건너와 돕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품앗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김경용 봉사회 도협의회 부회장(기동적십자봉사회)이 설명하는 도협의회의 운영 방식은 제주 수놓음 문화 그 자체입니다. 오우제 봉사회 도협의회 조직국장(나눔적십자봉사회)은 “봉사원 한 분 한 분이 자기 일처럼 움직이는 게 제주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37년째 봉사 활동을 이어온 양진석 회장은 “꽃 농사를 지으면서 어버이날마다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께 드려왔다”며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가 삶이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시사 소속 3천여 명의 봉사원이 제주 곳곳에서 나누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섬 전체의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RC 리포트

적십자의 탄생, 그 시작을 기억하는 날

제79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

2026년 5월 8일,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로 하나 되는 우리(United in Humanity)'를 슬로건으로 제79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홍국 회장 직무대행과 데이비드 칸 ICRC 한국사무소 대표를 비롯해 봉사원·후원자·헌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봉사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164년의 씨앗, 전 세계로 뻗은 인도주의의 뿌리

세계적십자의 날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창시자 장 앙리 뒤낭의 생일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제14차 국제적십자 회의에서 지정된 이래 전 세계 191개국 적십자사가 인도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올해 슬로건 '인도주의로 하나 되는 우



리는 비인간적 서사의 확산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인도주의라는 가치 아래 더욱 단단히 뭉쳐 함께 행동하자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64년 전 뒤낭이 심은 인도주의의 씨앗은 오늘날 전 세계 1,700만 명의 봉사원이 함께하는 인류의 희망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함께 행동하는 적십자

기념사에서 김흥국 회장 직무대행은 해마다 1억 명이 넘는 이재민이 고통받고 무력 충돌 피해가 지속되는 현실을 짚으며, 재난과 폭력의 일상화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감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 한 해 전문 구호 역량 강화, 맞춤형 통합 구호망 구축,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캔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수단·미얀마·가자 등 장기화된 위기 속에서도 적십자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인도주의로 하나가 되겠다는 다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대한적십자사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묵묵한 헌신을 빛내다, 봉사원 포상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헌신해 온 적십자 가족들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습니다. 올해의 적십자 봉사원상 대상은 제주지사 진성혁 봉사원이, 최우수상은 부산지사 여인자 봉사원과 경북지사 박은선 봉사원이 수상했습니다. 서울 역촌초등학교 서정봉 교감은 11년간 청소년 인도주의 확산에 힘써 온 공로로 보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병훈·박정은 봉사위원과 양광모·양하연 봉사원으로 이어지는 3대 봉사 가문에는 봉사 명문가 표창이, 본사 오현석, 서울동부혈액원 김지환, 서울적십자병원 이해진 직원에게는 직원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10년의 나눔, 친선대사로 새 출발

이날 기념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안재욱 친선대사 위촉식이었습니다. 2016년 홍보대사로 처음 인연을 맺은 안재욱 대사는 10년간 모금 캠페인 홍보,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 코로나19·산불 피해 성금 기부 등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필리핀 지진·수해 복구 등 재난 현장에도 직접 참여해 왔습니다. 김흥국 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친선대사 위촉장(제 2026-3호)을 전달받은 안재욱 대사는 친선대사·홍보대사를 통틀어 최초로 구호 조끼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오는 봉사원들에게서 늘 큰 감동과 교훈을 받았으며, 앞으로 국내외 어느 현장에서든 도움의 손길에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세계적십자의날



RC 리포트

명장의 레시피, 나눔의 온기가 되다



기술과 봉사를 하나로, 협약의 출발점

5월 6일, 광주 북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주)브레드세븐이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적십자 빵나눔터를 위한 빵 개발 및 제작, 제빵 봉사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브레드

대한적십자사 시그니처빵 개발로 지속 가능한 나눔의 가치를 더하다

적십자 봉사원이자 광주 제과제빵 명장인 마칠석 (주)브레드세븐 대표가 평생 갈고닦은 기술을 나눔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허니버터 마들렌 레시피를 봉사원들에게 직접 전수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적십자 시그니처빵'을 탄생시켰습니다. 기부를 넘어 기술이 이어지는 새로운 나눔의 모델이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세븐은 일주일 7일 내내 고객에게 맛있는 빵을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이름에 담은 베이커리 브랜드입니다. 광주 제과제빵 명장인 마칠석 대표는 전문가로서의 기술을 쌓아온 동시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과우봉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적십자 봉사원이기도 합니다. “빵을 만드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기



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쓰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니처빵 개발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빵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적십자 나눔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먼저 들었다는 마 대표는, 가진 기술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명장의 손끝에서 탄생한 시그니처빵

이날 협약식의 하이라이트는 마 대표가 허니버터 마들렌 레시피를 봉사원들에게 직접 전수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북구협의회 봉사원들과 함께 만든 빵 1,000개는 북구 23개 동 취약계층에 전달되었으며, 적십자 포장과 캐릭터를 활용한 포장재를 갖춘 ‘적십자 시그니처빵’으로 제작됩니다. 허니버터 마들렌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령대와 취향을 크게 타지 않고 보관도 쉬운 편입니다. 부드러움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라, 받는 분들이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재료에도 마 대표만의 철학이 담겼습니다. 100% 국산 가루쌀은 우리 농가와의 상생을, 순우유 버터는 품질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상징합니다. “재료는 기본이자 철학입니다. 가격이 부담될 때도 있지만 그 원칙만큼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빵을 받을 이들을 떠올리며 마 대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고 정성을 들였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레시피가 퍼질수록 커지는 나눔의 반경

마칠석 대표가 이번 협업에서 특히 강조하는 가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물질 기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을 나눈다는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 번의 지원이 아니라 그 기술이 또 다른 나눔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시그니처빵 판매 수익 일부를 적십자에 기부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사업과 사회공헌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사회에 환원하는 책임도 커집니다.” 적십자 시그니처빵은 광주전남지사를 넘어 전국 15개 지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레시피로 다양한 지역에서 빵이 만들어지고 같은 마음이 전달된다면, 그것이

나눔의 표준이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나누고 연결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마 대표는 이렇게 전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나누는 순간, 그 가치가 몇 배로 확장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RC 해외 리포트

대한적십자사가 일궈낸 아시아의 기적 ‘K-재난대비현장’을 가다

방글라데시·네팔 현장에서 만난 재난위험경감(DRR) 사업

재난위험경감(DRR)은 위기가 닥치기 전 위험을 미리 살펴 피해를 줄이고 회복력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월 방글라데시 탕가일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네팔에서는 통합적 물과위생 및 재난위험경감 사업을 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힘, DRR

재난위험경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 사업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미리 분석해 실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적응하는 재난복원력을 강화하는 활동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취약지역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대비·대응 능력과 적십자의 역할을 동시에 키우는 ‘지역사회 기반 재난위험경감(DR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16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공동으로 설립한 ‘아시아태평양 재난복원력센터’

가 있습니다. 센터는 글로벌 재난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아태지역의 국가와 적십자사,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재난복원력을 기른다는 목표로 38개 적십자사·적신월사를 지원해왔습니다. 주요 활동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난대비 취약성 조사(VCA)로 위험과 대응 역량을 진단하는 일, 신속한 대피를 돕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물과 쉼터, 그리고 다시 일어난 이웃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한적십자사는 방글라데시 탕가일 사업현장을 찾았습니다. IFRC 방글라데시 사무소와 방글라데시적신월사(BDRCS)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으로 이동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난위원회(WDMC)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위생 교육 프로그램인 ‘코트야드 세션(손씻기와 식수 관리법)’을 참관, 쉼터와 새로 개선된 식수시설도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재봉사, 동물의약품 판매자, 소매점 운영자, 릭샤 운전원, 대나무 공예사, 가축 지원을 받은 농가까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들도 직접 만납니다. 주민들은 생계 기반을 회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고 있었고, 이는 재난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과 위생에서 재난 대비까지, 네팔의 4년

국경을 넘어선 인도주의는 네팔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네팔적십자사와 함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억 7천만 원을 들여 산쿠와사바야 사바포



카리 지역 1,078가구, 4,994명을 대상으로 ‘통합적 물과위생 및 재난위험경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관리위원회 구성과 비상대응 체계 강화, 학교 건물 개보수와 응급처치 교육, 가정용 화장실과 식수 시설 보급, 건강검진과 심리사회적 지지(PSS), 기후스마트 영농 지원까지 일상과 재난 대비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장애인과 미혼여성을 위한 소득창출·직업훈련, 조혼 중단 인식 개선 교육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로 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는 지금, 재난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 피해는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돕기 캠페인

방학이 두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재현이, 민재, 지우의 오늘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다 굶주린 채 잠드는 재현이,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저녁 어린 동생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민재, 아빠의 암 투병으로 엄마마저 일터에 나가 텅 빈 집에 배고픔과 외로움만 남은 지우. 이 아이들은 모두 실제 결식 우려 아동의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전국 결식 우려 아동은 272,400명으

결식 우려 아동을 지키는
대한적십자사 황금도시락 캠페인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38,317명, 전국 결식 우려 아동은 272,400명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굶주리는 아이가 더 많은 현실 속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황금도시락 캠페인은 돌봄 공백에 놓인 아이들에게 봉사원의 손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합니다.

로, 같은 해 출생아 수인 238,317명을 웃돕니다. 결식 우려 아동이란 보호자의 질병·장애·근로 등의 사유로 식사를 준비받기 어렵거나, 스스로 챙겨먹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지만, 방학이 시작되는 순간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반복되는 배고픔은 아이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도시락에서 돌봄까지, 세 가지 지원

황금도시락 캠페인은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도시락·밀반찬·밀박스를 구입하거나 적십자 봉사원이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아동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연봉사원이 가정을 정기 방문하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살피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돌봄 지원으로 아이의 삶의 질을 함께 보장합니다. 서울지사는 지난 여름방학 아동 40세대를 대상으로 8주간 총 320회 급식을 지원했고, 전북지사는 겨울방학 기간 관내 아동 32명에게 점심 도시락을 매일 전달했습니다. 인천지사는 지역아동센터 35명에게 밀박스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식단도 제공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연계는 결식아동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냅니다.

한 끼가 전하는 것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밥 굶는 어린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황금도시락 캠페인에 참여한 후원자들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황금도시락 하나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은 따뜻한 음식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입니다. 아이들이 배부를 권리는 방학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봉사원·소상공인·후원자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황금도시락 캠페인을 이어나갑니다.

참여 방법

황금도시락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정기후원으로 매달 아이들의 한 끼를 책임지거나, 일시후원으로 지금 바로 황금도시락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적십자 지사에 봉사원으로 등록하면 도시락 조리·배달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의 1577-8179

(월~금 09:00~18:00,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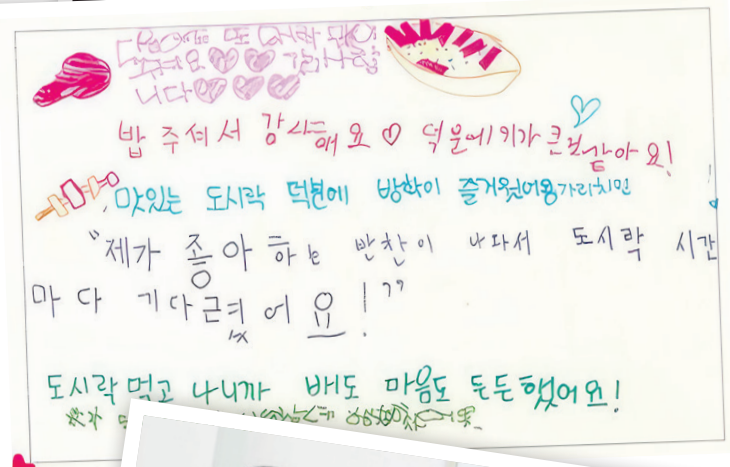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004401-04-159989

입금자명 : '성명' + '도시락'



황금도시락





RC 스토리

K-인도주의를 세계로 전하다

위기의 시대가 요청한 교육, IMPACT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공동 개발한 IMPACT 교육은 'International Mobilization and Preparation for ACT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행동을 위한 국제 동원과 준비'를 뜻합니다. 인도주의 국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요원들이 분쟁·재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초 역량 과정으로, 국제적십자운동의 원칙과 협력 체계, 국제인도법(IHL), 재난 대응 시스템, 보안 위

비유럽권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IMPACT ToT

전 세계 인도적 위기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비유럽권 최초로 국제 구호 강사 양성 프로그램 'IMPACT ToT(Training of Trainers)'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4월, 12개국 18명의 현장 전문가가 서울에 모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인도주의 교육의 무게중심을 아시아로 확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인 동시에, 대한적십자사의 국제적 역할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험 관리까지 실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유엔대학 분쟁데이터프로그램(UCDP)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국가 간 충돌은 194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연재난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매일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금, 현장을 이끌 전문 구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수요에 응답하며 국내 직원은 물론 자매 적십자사 직원들과 함께 이 교육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재난·분쟁 현장 속 ToT 교육의 현장

IMPACT ToT는 교육을 이끄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양성하는 심화 과정으로, 각국 적십자·적신월사 및 IFRC·ICRC 소속 베테랑 18명이 12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듣는 대신 직접 맡은 모듈을 설계하고 동료 앞에서 교육 세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약 38시간의 실습을 완주했습니다. 학습동기유발 모델(ARCS) 적용, 사례 기반 학습, 그룹 토의 설계 등 교육 방법론 전반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모의훈련(SIMEX) 세션이었습니다. 가상의 국가 '알파랜드(Alphaland)'를 배경으로 실제 재난·분쟁 현장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참가자들은 현장 보안 위험 관리부터 긴박한 상황 속 소통과 의사결정까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교육을 이끈 강사진 역시 IFRC 수석 트레이너 Javier Antonio Barrera, ICRC 아태지역 협력개발 코디네이터 Catherine Marie Martin 등 국제 인도주의 분야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수료 후 참가자들에게는 IFRC·ICRC·대한적십자사 세 기관 공동서명이 담긴 수료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인도주의를 알리는 대한적십자사의 국제적 역할

그동안 IMPACT ToT는 유럽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비유럽권 국가 최초 개최는, 대한적십자사가 국제 인도주의 교육 체계에서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대표 인도주의 기관이기에 앞서, 19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적십자 운동의 정식 구성원입니다. 이 사실은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복지·구호 활동과 함께 글로벌 구호 역량을 확산시키는 임무도 함께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양성된 18명의 강사들은 귀국 후 각자의 국가와 기관에서 IMPACT 교육을 이끄는 현장 교육자가 됩니다. 교육 한 번이 강사를 낳고, 그 강사가 더 많은 전문 구호 인력을 길러내는 선순환은 IMPACT ToT가 지향하는 인도주의의 지속가능한 확장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구호 인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쟁과 재난 현장 어디서든 인도주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받은 사랑,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양인준·강은희 진영마트 대표

1995년 제주시 용담동에 문을 연 진영마트
는 31년이 지난 지금 제주를 대표하는
향토 유통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사업
이 안정적으로 되자 주위를 살피게 된다’
는 강은희 대표의 말처럼, 두 사람은 성실
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군 결실을 지역사회
회와 함께 나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단, 하나의 출발점

양인준 회장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될 만큼 탁월한 영업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제주로 귀향을 결심하면서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유통업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했고, 현대적인 유통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창업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아내인 강은희 대표는 서울에서 7년간 교단에 섰던 국어 교사였습니다. 안정된 공직을 내려놓고 제주행을 선택한 것은 큰 결단이었기에, 교감 선생님이 “장사는 공무원 생활과 다르다”며 만류할 만큼 주변의 우려도 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995년 제주시 용담동에 90평 규모의 진영마트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제주시에 가장 넓은 민간 매장이었고, 이후 외도점·서사라점 등으로 확장하며 제주 향토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신뢰를 경쟁력으로, 안정을 발판으로

진영마트의 성장 뒤에는 양인준 회장의 철저한 경영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음 결제가 업계 관행이던 시절, 진영마트는 100여 곳의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전액 기일 내 온라인으로 입금해 왔습니다. 신뢰가 쌓이자 납품업체 측에서 먼저 역제안이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가격을 낮출 테니 물량을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결제 조건이 더 유리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은희 대표는 이를 “회장님 특유의 성실함과 거래처를 배려한 결제 방식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렇게 쌓인 기반이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열어주었고, 이웃을 살피는 일과 성실한 경영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지역으로 돌아가는 나눔

2024년 12월, 양인준 회장(제주 52호)에 이어 강은희 대표(제주 53호)가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부부클럽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두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취약계층 지원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진

영마트가 자리한 용담2동·삼도2동·외도동 지역에 각 1000만원씩 전달돼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에 쓰였습니다. 같은 해 제주소방안전본부에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보급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고, 2026년에는 제주경찰청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공공 안전 영역으로도 나눔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성금 5,000만원, 신사옥 이전 기금 기탁 등 적십자를 통한 나눔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인준 회장은 “제주 도민의 성원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합니다. 강은희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우리 마트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며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고자 부부가 함께 가입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웃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이들의 ‘나눔 경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RC 후원금 리포트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2025년 지역사회봉사(희망풍차)

저출산고령화, 이주민 증가 등 사회적 이슈에 기반한 국민공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봉사원 주도의 사업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봉사동력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유기적인 희망풍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희망풍차 프로그램 지원 현황

구분	지원 인원(가구, 명)	금액(억 원)	비고
긴급지원	1,611	3,328	35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결연지원	19,862	31,543	42 결연가구 정서·물적 지원
맞춤지원	-	439,516	131 이른둥이, 자립준비청년 등
계	21,473가구	474,387명	208억 원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봉사원 확대

봉사원 교육 체계화 및 사회문제 대응역량 강화



봉사원 전문교육 수료
(공동 교육 교안 5종 신규 제작)

16,408 명



환경문제 대응 봉사활동
전국 제안대회 개최

(12개 시도협의회 참여, 우수 프로그램 2026년 추진)



사회적 이슈 기반 국민공감 프로그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독거노인

- 치매안심프로그램 '기적' 브랜딩, **1,883명** 수료
치매파트너 플러스교육
- 전국 15개 지사 치매선도단체 지정
- '치매극복의날' 기념 노인정책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2025.09.16)

미숙아(이른둥이)

- 입원·재활치료 및 RSV 접종 지원
256회 / 2억 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2024년 론칭된 '자립시, 꽃길로'는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서 지원,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진로·재무 교육, 건강검진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험과 문화교류 기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대응 맞춤형 대응

자립준비청년·희귀질환 소방관

- 자립준비청년 미래준비자금 지원
852명 / 4억 원
- 희귀질환 소방관 치료비 지원
20명 / 1억 원



이주민

- 다문화 'All Together' 통합브랜딩
- 다문화학교 확대 운영
(서울·부산·경기·광주전남·제주)



신규 봉사동력 확보 및 육성



2025년 프로그램 참여
봉사원 신규가입
11,821명



신규봉사원 육성 지원 기금 마련
(약 200개 봉사회 활동 지원 예정)

1억 원



봉사원대축제

일상 속 RC

두통, 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통은 왜 생기나요?

두통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과 흥분성 두통’으로,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뇌세포가 과흥분 상태가 되기 쉽고, 이때 두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편두통 또는 뇌과민성 두통입니다. 역시 유전적 소인이 바탕에 있지만, 스트레스·수면 부족·날씨 변화 같은 외부 요인이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기온 급상승, 강한 자외선, 냉방 공간과 실외의 급격한 온도차, 그리고 땀으로 인한 수분· 전해질 손실 등이 이 방아쇠를 연속으로 당기기 때문에 두통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 장시간 근무하거나, 야외 활동 후 갑자기 차가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적십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여름철 두통 예방법

여름이면 유독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은 강렬한 햇빛과 찌는 더위, 실내외 급격한 온도차, 수면 부족 등 두통을 유발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두통은 흔한 증상이지만 뇌 신경계가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 신경외과 이정교 원장과 함께 두통의 원인과 올바른 예방법을 짚어봅니다.

두통, 그냥 참으면 안 되는 이유

두통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기엔 진통제 한 알로 넘기거나 아예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통이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름철에는 탈수로 인한 혈액 점도 상승과 혈압 변동으로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은 뇌졸중의 주요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한 두통이 수면을 방해하고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두통과 함께 구역감·어지러움·시야 이상·언어 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즉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심각한 합병증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여름철 두통, 이렇게 관리하세요

두통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은 뇌의 과흥분 상태를 억제하고 두통 발생 빈도를 낮춥니다. 여름철에는 늦은 야외 활동이나 무더위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수면 환경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 두통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단, 한여름 정오의 야외 운동은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습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카페인·알코올은 두통의 주요 유발 요인인 만큼 여름철에는 특히 자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편두통의 가장 흔한 트리거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휴식, 명상 등을 일상에 녹여 뇌와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천적십자병원

1956년 인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설립되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의료를 담당해왔습니다.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병원 앞뒤 2만여 평의 정원은 환자들의 치료·요양 공간으로 쓰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진료센터와 누구나진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032-899-4000

두통 예방을 위한 여름철 생활 수칙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수면 환경을 서늘하게 유지



규칙적인 운동

이른 아침·저녁 시간대
유산소 운동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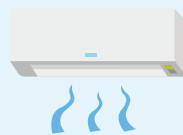
균형 잡힌 식사

가공식품·카페인·알코올 줄이고,
채소·과일로 수분 보충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칭·짧은 휴식·명상으로
뇌의 긴장 완화



온도차 주의

냉방 공간 장시간 노출 자제,
실내외 이동 시 체온 관리



전문의 상담

두통이 반복되거나 구역감·어지러움이
동반되면 즉시 신경과 진료

RC와 떠나는 여행

제주에서는 더위도 쉬어 갑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청량한 바다와 초록의 숲으로 더위를 단숨에 제압하는 고마운 섬, 제주도가 우리의 땅이니 말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용암 동굴도 시원함을 넘어 서늘하기까지 해 완벽한 피서지다. 때로는 이열치열이다. 제주의 토속음식 고사리육개장과 몸국은 맛은 물론 보양까지 책임진다. 1년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은 섬이지만, 제주행이 특별히 간절해지는 시기는 역시 뜨거운 여름이다.

여행작가 태원준

25년간 100개국 이상을 여행한 베테랑 여행자.
3년 동안 전국 161개 시군 모두를 여행하며
<대한민국 완전정복 가이드북>을 집필했다.
@spaceneedle_



우진 해장국



제주조만복 본점



사려니숲길



형제해변



네거리식당

협재 해변

한림읍

한경면

안덕면

대정읍

제주시

사려니숲길

서귀포시

남



여름철 제주의 명소

제주에 왔다면 열 일 제치고 바다부터

육지의 그것에 비해 유독 더 짙고 푸른 제주의 바다는 넉넉한 품으로 피서객의 더위를 단번에 날려준다. 지역을 대표하는 협재 해변은 늘 봄비긴 해도 맑은 물빛과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 비양도와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광까지 바다 여행의 모든 것을 담아낸 곳이다. 조용한 피서를 원한다면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코난해변'이 제격이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 해변의 이름은 '코발트 빛보다 낮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발트블루의 물결과 좁은 백사장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더위를 잊게 만드는 대자연의 선물, 숲과 동굴

바다와 함께 제주의 자연을 대표하는 울창한 숲도 여름에 진가를 발휘한다. 한라산 기슭에 드넓게 펼쳐진 사려니 숲길은 시원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번갈아 상쾌한 공기와 피톤치드를 선사한다. 육지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비자나무 군락지인 비자숲도 명상과 산책을 즐기기에 제주 으뜸으로 꼽힌다. 바다와 숲에서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면 세계가 인정한 용암동굴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낙석으로 인해 2년 넘게 폐쇄되었던 만장굴이 지난 5월 말부터 재개장했다. 화산 폭발 후 흘러내린 용암이 빚어낸 이 긴 동굴의 탐방로 끝에는 초대형 용암 석주가 자리해 대자연의 경이를 실감케 한다. 자연스레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육지에서는 접하기 힘든 맛

물로 돌아가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토속음식을 맛보는 것이 제주 여행의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 섬의 특산물 고사리를 아낌없이 갈아 넣어 만든 걸쭉한 고사리육개장은 별미 중의 별미다. 돼지고기를 삶아 육수를 낸 뒤 불린 모자반을 곁들인 몸국은 보양 음식으로 통한다('몸'은 모자반을 뜻하는 제주어다). 두 음식 모두 '우진해장국'이 유명하다. 제주의 진미로 통하는 갈치를 다양한 요리로 선보이는 '네거리식당', 전복 내장으로 밀간한 독특한 네모 김밥의 '제주김만복김밥'도 맛집으로 손꼽힌다. 고기국수가 먹고 싶다면 섭지코지 초입에 위치한 '가시아방국수'가 제격이다.





RC가 말하는 인도주의

등불을 든 여성들 적십자 인도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나이팅게일에서 클라라 바튼,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원회까지, 164년을 이어온 이름들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 전투가 끝난 뒤, 카스틸리오네 마을의 여성들은 어느 편 병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투티 프라텔리(Tutti Fratelli) - 우리 모두는 형제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날 191개국, 1,700만 명이 함께하는 국제 적십자 운동의 씨앗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펴낸 『인도주의를 실천한 여성들』은 그 씨앗에 물을 준 이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전장의 등불이 된 여성들

1854년 크림전쟁,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은 38명의 간호사를 이끌고 야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장의 사망 원인 대부분이 감염과 불결한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통계로 증명하고 위생 개혁을 이끈 나이팅게일은, 뒤날이 솔페리노를 경험하기 5년 전에 이미 구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활동의 본보기를 세운 인물입니다. 뒤날은 말년의 회고에서 나이팅게일에 대해 “사람들은 나를 적십자 설립자이며 제네바 협약 발기인으로 부르지만, 그 명예는 한 영국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미국 남북전쟁의 야전병원을 이끌던 클라라 바튼(Clara Barton, 1821~1912)이 1881년 미국적십자사를 설립했습니다.

클라라 바튼





니다. 그는 적십자 활동의 범위를 전쟁터에서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오늘날 적십자의 역할은 그의 선구적 주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도주의라는 유토피아를 현실로

뒤낭 곁에는 그의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의 아우구스타 황후(Augusta, 1811~1890)는 직접 적십자 완장을 두르고 뒤낭의 활동을 지지하며 유럽 궁정에 적십자 운동을 알렸습니다. 평화운동가 베르타 폰 주트너(Bertha von Suttner, 1843~1914)는 스위스 하이덴의 요양원에서 외롭게 노년을 보내던 뒤낭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했고, 1901년 뒤낭은 제1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뒤낭을 도운 레오니 카스트너 부인, 18년간 간호를 전담한 수간호사 엘리제 볼리거, 어린 뒤낭에게 이웃 사랑의 마음을 심어준 어머니 안느-앙투아네트까지 『인도주의를 실천한 여성들』은 “뒤낭의 업적은 여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기록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이어온 70년

대한민국 인도주의의 든든한 후원자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1955년 사회지도층 여성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습니다.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며 신뢰를 쌓아온 위원회는 창립 70년이 지난 지금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에서 450여 명의 자문위원이 활약하는 국내 대표 후원·자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재해 이재민 구호와 봉사원 육성은 물론, 조손가정을 돕는 ‘징검다리 사랑 네트워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소외된 이웃의 자립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특히 창립 70주년이었던 지난 2025년에는 취약계층의 쾌적한 급식·빵 나눔을 위해 적십자나눔터 개선 기금 2억 원을 기탁했으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적십자 바자’를 전국 각지에서 성황리에 열어 수익금 전액을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동절기 물품 지원에 전했습니다. 과거 슐페리노의 여인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의 곁을 지켰듯, 자문위원들은 오늘도 우리 사회 가장 필요한 곳에서 숭고한 인류애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2만여 가구에 폭서기 나기 물품 지원

대한적십자사는 6월 8일 때 이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취약계층 2만여 가구에 총 8억 원 규모의 폭서기 구호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원은 홀몸 어르신, 조손가정 등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지사 적십자 봉사원들은 수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쿨매트, 선풍기, 여름 이불 등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밀착형 돌봄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후원 재난대응의료팀(HERU) 도입

대한적십자사는 4월 27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업비트가 후원한 '재난대응의료팀(HERU) 차량'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차량 5대는 서울·인천·상주·통영·영주적십자병원에 배치되어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구호 인력을 위한 긴급 의료지원을 수행합니다. 이 차량은 두나무가 2025년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한 성금 10억 원 중 3억 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두나무는 그동안 산불과 수해, 강릉 가뭄 피해 등을 위해 총 25억 7천여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주), 5월 15일 촌스러버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

대한적십자사는 5월 15일 교촌에프앤비(주)와 '제6회 촌스러버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1억 5천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이어진 이 프로젝트는 치킨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전하는 교촌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입니다. 기부금 전액은 대학RCY 회원들의 '촌스러버' 활동과 치킨 나눔에 사용됩니다. 올해 선발된 대학RCY 회원들은 12월까지 환경미화원, 소외 이웃 등을 찾아가 교촌치킨 5,000마리를 전달하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착한 소비가 이웃의 든든한 밥상으로, '사랑의 나눔터 바자'

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4월 23일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2026 사랑의 나눔터 바자'를 개최했습니다. 40여 개 기업이 마련한 다채로운 물품 위로 이웃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날 모인 수익금 전액은 홀로 끼니를 챙기기 힘든 홀몸어르신과 한부모가정 아이들 300가구에 밑반찬을 전하는 데 쓰입니다. 알뜰한 소비가 이웃을 위한 기부로 이어진 봄날의 하루가 일 년 내내 이웃들의 든든한 밥상으로 피어났습니다.



왕십리 광장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

서울지사 RCY는 5월 16일 왕십리 광장에서 '제15회 청소년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초·중·고·대학생 단원 1,000여 명이 직접 기획한 40개의 체험 부스에서 심폐소생술, 환경보호, 나눔 등 다채로운 인도주의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도 학생들과 함께 호응하며 봉사의 즐거움을 만끽했고, 아이들 그룹 어센트의 축하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쏘아 올린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협력, 여의도 한강 수난구조 종합훈련

서울지사는 5월 30일 여의도선착장에서 소방, 경찰 등과 함께 '수난구조 종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선박 사고를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30명의 응급처치 강사가 발 빠른 심폐소생술(CPR)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냈고,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마음구조 차량'을 운영하며 구조된 승객들의 놀란 마음까지 다독였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겠다는 적십자의 약속 덕분에 우리의 여름은 한결 더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RC 뉴스

부산지사



부산지역RCY 청년봉사회 발대식

부산지사는 4월 14일 '부산지역RCY 청년봉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주도 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만 19~34세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청년봉사회는 정기 봉사활동과 운영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합니다. 또한 청소년적십자(RCY) 단원 멘토링과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인도주의 활동의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활동 영역을 지역 곳곳으로 점차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아카데미 2기 입학식

부산지사는 4월 16일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 다함께 가자 아카데미' 2기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베트남, 중국 등 결혼이주여성 및 적십자 봉사원 37명이 참여해 한국전통매듭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카데미는 2027년 1월까지 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민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행성사 RCHC 명예의 전당

부산지사는 5월 26일 (주)행성사(회장 허맹)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 가입을 기념해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개최했습니다. 1964년 설립된 전자부품 기업 (주)행성사는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와 국내외 재난 지원에 꾸준히 동참해 왔으며, 이번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재난 구호, 위기가정 지원 등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어 지역사회에 더 큰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대구지사



동현종합건설,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대구 23호 가입

동현종합건설(대표 임상우)은 3월 24일 대한적십자사의 1억 원 이상 고객 기부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Red Cross Honors Company)에 대구 23호로 가입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주요 건축물을 시공해 온 종합건설기업인 동현종합건설의 임상우 대표는 공간을 만드는 건설업과 생명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 공감해 가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한 1억 원은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재난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지사-대구시약사회 사회공헌협약 체결

대구지사는 5월 6일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와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구시약사회는 매년 적십자 급식 활동을 후원해왔으며, 협약 이후 '쌔쌔이가 바른 약사회' 가입을 통해 재난구호와 위기가정 지원 정기후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병미 회장을 비롯한 대구 관내 약국들도 정기후원에 참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HS화성,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3억원 클럽

HS화성(회장 이종원)은 5월 29일 대한적십자사의 법인·단체 고객기부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3억 원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2008년 대구지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특별회비 기탁과 급식 후원을 이어온 HS화성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마스크 기부와 1억 원 성금 전달로 자가격리자와 다중이용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힘을 보냈으며, 화성장학문화재단을 통한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 누적 기부금은 약 3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인천지사



우수모금봉사원 대상 ‘2026 나눔위원’ 위촉식 개최

인천지사는 4월 17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모금봉사원을 대상으로 ‘2026 나눔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적십자 후원회원 발굴에 적극 동참해 인도주의 활동 재원 마련에 헌신한 9명의 봉사원이 나눔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들은 향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금 방법을 개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지사는 나눔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후원 기반을 넓히는 한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안정적인 모금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HCIS Songdo, 청소년적십자 신규창단식

채드워송도국제학교(HCIS Songdo)는 4월 1일 청소년적십자(RCY) 신규 창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창단식에는 약 50여 명의 신규 단원들이 참석해 단원맹세와 단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단원들은 창단을 기념해 학부모 대상 ‘나눔의 의미’ 뉴스레터를 직접 제작·공유하는 한편,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함께 펼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이번 창단은 송도 지역 청소년들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북봉사관 행복한 기억나눔 행사

인천지사는 5월 19일 서북봉사관에서 서구 관내 치매 어르신과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십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기억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치매안심프로그램 ‘기적’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치매 어르신과 돌봄종사자 130여 명이 참석해 케이크 만들기와 칠교놀이,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동참했습니다. 인천지사는 2024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이후 치매예방 인식개선 캠페인과 치매파트너 교육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향후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지사



울산RCY,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봉사활동

울산적십자사 RCY 단원들은 3월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념행사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단원들은 기념식장을 찾은 시민과 유족들을 안내하고, 태극기 배부 및 3·1절 역사 알리기 캠페인을 펼치며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단원은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울산RCY는 앞으로도 역사인식을 품은 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울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울주군 산불 1주기 추수상당

울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울주군 대형 산불 1주기를 맞아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동 변화를 확인하는 ‘추수상당’을 실시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온양읍 내 경로당 4개소에서 주민 150여 명에게 심리상담과 안정화 요법을 제공했으며, 울산과학대 간호학과와 협력해 건강 측정과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재난경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1회 나눔을 함께하는 Share RED 캠페인 개최

울산지사는 5월 30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 ‘제1회 나눔을 함께하는 Share RED’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적십자의 다각적인 구호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난구조 및 무선통신장비 체험, 마음살핌 프로그램, 치매예방 캠페인, 심폐소생술(CPR) 교육, RCY 체험 등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산지사는 향후 이 캠페인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세종지사



대전안전공업 화재 현장 긴급구호 활동

대전세종지사는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이재민과 대응 인력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직원과 봉사원, 이동급식차량을 투입해 석식 600인분과 조식 400인분을 제공했으며, 생수와 핫팩, 응급구호세트, 담요 등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부스를 운영하고 임시대피소 내 쉼터를 설치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을 폭넓게 전개했습니다.



ESG 실천캠페인 '희망의 나무를 심다' 개최

대전세종지사는 4월 28일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서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ESG 실천캠페인 '희망의 나무를 심다'를 개최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번 환경보호 행사에는 ESG 실천기업 관계자와 적십자 임직원, 봉사원, RCY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이팝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며 산림생태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가치 실천에 동참했으며, 대전세종지사는 캠페인을 매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전 주요 거리 배수로 정비 봉사활동 실시

대전세종지사는 5월 19일 대전 중구 응봉정 이거리와 대흥동 예술문화거리 일원에서 직원과 봉사원 80여 명이 참여해 배수로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동네 재난안전 지킴이(우재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수로에 쌓인 담배꽂초와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대전세종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화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입니다.

경기지사



수원월스기념병원, (주)팔복시스템 장상안 전무이사 RCHC 가입

경기도 수원시의 월스기념병원과 군포시 소재 (주)팔복시스템 장상안 전무이사가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에 가입했습니다. 3월 9일 전국 345호, 경기 20호로 가입한 장상안 전무이사는 2022년 가입한 부친 장대우 대표, 2025년 가입한 형 장상규 변호사와 함께 부자가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수원월스기념병원은 3월 12일 전국 302호, 경기 15호로 아너스기업에 가입했으며, 이연희 행정원장은 경기도여성특별봉사자문위원회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주)범천정밀, 나눔의 한걸음 걷기행사 개최

경기도지사는 5월 16일 (주)범천정밀과 함께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2026 독립기념관 역사와 나눔의 한걸음' 자선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며 걸음마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 429명은 독립기념관 일대를 걸으며 1걸음당 1원씩 기부해 연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협의회 봉사회들도 동참해 행사 진행을 도왔으며, 모인 기부금 전액은 화성시 지역 내 소외된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호복지팀 대상 사회봉사 직무 워크숍 개최

경기도지사는 5월 21일 구호복지팀과 봉사관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구호·사회봉사 직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복합재난 증가와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 이해, 재난구호 종합계획서와 단계별 체크리스트, 희망풍차 실무, 봉사회 조직관리,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특수차량 운용 등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실무 적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원지사



소금산 그랜드밸리 CPR 보급 캠페인 실시

강원지사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소금산 출렁다리 앞 광장에서 심폐소생술 보급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와 협업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관광객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체험 교육이 전개되었습니다. 강원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광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난 현장의 안식처, 이재민 긴급구호 쉼터 130동 신규 도입

강원지사는 4월 3일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재민 긴급구호 쉼터 130동'을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쉼터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며,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강원지사는 이를 통해 구호물자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향후 실전 대응 훈련으로 운영 프로세스를 점검해 재난구호 전문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명예장 수상

강원지사는 5월 13일 지사 로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후원금 및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해외 식수 부족 국가를 위한 후원금 700만 원과 도내 위생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용품 파우치 620만 원 등 총 1,3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공단은 이번 기부로 누적 기부금이 1,000만 원을 돌파해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강원지사는 성금을 도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는 구호 활동에 투명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충북지사



청주 김안과, 충북 1호 '쌔쌔이가 바른병원' 가입

청주 김안과는 3월 17일 충북 도내 병원 중 제1호로 '쌔쌔이가 바른병원'에 가입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김두은 대표원장과 서상진 원내장 센터장, 조지안 총괄부장, 충북적십자사 강태억 부회장, 이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두은 대표원장은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살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후원을 이어갈 뜻을 전했습니다.



청주 가스 폭발 피해 현장 지원

충북지사는 4월 13일 발생한 청주시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 심리회복지원 인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재난으로 충격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9건의 전문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마음 치유에 힘썼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지사 직원들과 적십자봉사회 흥덕구협의회 봉사원들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잔해물을 수거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봉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북지사, 제2권역 재난구호 종합훈련

충북지사는 5월 27일 '제2권역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청주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화학사고로 다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4개 ERU(Emergency Response Unit)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별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권역별 인프라를 집중 투입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훈련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충남지사



충남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전직무교육 연계 구호훈련

충남지사는 4월 22일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홍성소방서, 피스원즈코리아와 함께 충남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1부 재난안전 직무교육, 2부 재난상황 가정 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 심폐소생술, 이재민 대응교육, 구호물품 교육, 임시대피소 설치 방법을 숙지하고, 2부에서는 풍수해 피해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구호활동 인력의 전문성과 실전 대처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세계적십자의날·어버이날 어르신 효도행사 개최

충남지사는 5월 8일 세계 적십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충남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적십자 봉사원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효(孝)잔치상을 준비해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축하공연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강경여중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 한마당

충남지사는 5월 9일 논산시 강경여자중학교에서 RCY제정 제63회 스승의 날 기념 '2026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기념탑 헌화와 묵념을 시작으로 사제동행화합의 장, 존사애제 감사꾸러미 만들기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 청소년적십자(RCY) 단원과 지도교사들이 참여해 존사애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충남지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RCY 인성 함양 활동을 지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전북지사



전북 RCY,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의 날 캠페인

전북자치도지사는 5월 14일 도내 청소년적십자(RCY) 결단교 22개교 단원 600여 명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스승과 제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제동행 제빵봉사, 유기견 돌봄, 카네이션 키링 만들기 및 감사카드 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동참했습니다. 단원들은 직접 구운 빵과 따뜻한 마음을 지역 취약계층 이웃들과 나누며 배려와 나눔의 인도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동물원에서 어린이날 기념 체험행사 진행

전북자치도지사는 어린이날(5월 5일)을 맞아 전주동물원에서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아동들을 위한 야외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야외활동 기회와 정서적 활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총 25명의 아동이 참여해 동물원 관람과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습니다. 전북지사는 아이들의 학업을 응원하는 학용품 세트도 전달했습니다. 참여한 한 아동은 "호랑이를 직접 봐서 정말 행복했고, 오늘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예수병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전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4월 17일부터 이틀간 전주 예수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이 일상속 불안과 스트레스를 살피고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활동에서 상담활동가와 센터 직원들은 무료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도 안내했습니다. 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심리상담소를 지속 운영하며 도민들의 마음 건강을 살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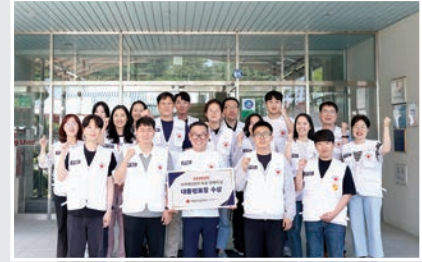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사

나눔과 연대의 리더,
레드크로스 리더스클럽 발대식 개최

광주전남지사는 4월 27일 지역사회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점이 될 '레드크로스 리더스클럽'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와 후원 인사 등 37명으로 구성된 클럽의 위원장에는 조덕선 (주)SRB그룹 회장이 선임되었습니다. 리더스클럽은 '나눔을 이끄는 리더, 생명을 살리는 연대'를 슬로건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인도주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향후 정기 모임을 통해 활동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지사 RCY,
5·18 주먹밥으로 희망 나누다

광주전남지사는 5월 17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5·18 민주정신 계승 포럼 및 주먹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RCY 단원과 봉사원 등 130여 명이 참여해 오월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주먹밥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1부 포럼에서는 공동체 연대와 인도주의 정신을 연결하는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주먹밥 3,000인분을 전달하고 헌혈 캠페인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펼쳤습니다.

2026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표창

광주전남지사는 6월 2일 국가 재난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장관 표창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탁월한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당시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긴급구호와 유가족 심리지원에 전개하고, 신형 헬터를 확충해 구호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극한호우 상황에서 이동식 급식차량과 재난심리회복버스를 신속히 동원해 이재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 안전망 구축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경북지사

스틸사이클(주), 사회공헌협약 및
아너스기업 경북11호

경북지사는 5월 13일 친환경 대표 기업 스틸사이클(주)(대표이사 오근호)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경북 11호)'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스틸사이클(주)은 아너스 기업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ESG 실천기업'으로서 매월 1백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그간 울진·경북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등 현장 중심의 ESG 경영을 통해 자원순환을 넘어 지역사회에 '행복의 순환'을 만드는 인도주의 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육사 시인 종손녀 소프라노 이영규,
신임 홍보대사 위촉

경북지사는 3월 25일 지사 양리 뒤남 홀에서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의 종손녀이자 소프라노 이영규를 신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촉은 이육사 선생의 애국애민 정신을 오늘날의 인도주의 가치로 계승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영규 홍보대사는 "육사 선생님께서 극한 속에서도 희망을 꿈꿨듯, 적십자 홍보대사로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밝은 내일을 선물하는 목소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북지사는 이영규 홍보대사와 함께 인도주의 활동을 알리며 도민들의 나눔 동참 확대를 기대합니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 32명
수상구조사 양성

경북지사는 4월 25일 육군3사관학교 수영장에서 생도 32명을 대상으로 '수상구조사 2급 교육'에 나섰습니다. 수상구조사 공식 교육기관 지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국방의 주역들이 고난도 수상구조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4주간 40시간 동안 수상구조 기술 실습과 응급처치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북지사는 앞으로도 육군3사관학교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군 장병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경남지사



2026년도 적십자 봉사원 리더·전문교육

경남지사는 4월 21일 봉사원들의 리더십 향상과 효율적인 봉사회 운영을 위해 '2026년도 적십자 봉사원 리더교육 및 전문교육'을 경남지사와 서부봉사관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했습니다. 약 200명의 봉사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국제적십자운동과 인도주의, 봉사회 회의 진행법과 임원의 역할, 봉사회 조직 운영, 희망풍차 실무과정, 모금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역별 맞춤 교육을 지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시대피자용 재난안전꾸러미 2,000세트 제작

경남지사는 5월 14일 경상남도도와 함께 도민들의 안전한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꾸러미' 2,000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일시대피하는 이재민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기 위한 이 꾸러미는 세면도구세트, 수건, 담요, 마스크, 화장지 등 10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작에는 창원 의창성산구협의회 적십자봉사원 33명, 한국전력 경남본부 사회봉사단 8명, 적십자 직원 7명 등 총 48명이 참여했습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26·27호 동시 가입

주식회사 에스와 박윤규 치과의원은 각각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26호, 27호에 가입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스는 위기가정과 청소년 학습비 지원, 'ESG실천기업'과 '쓰쓰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박윤규 치과의원은 기차 충돌 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어려움에도 오지마을 봉사와 해외 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사랑의열매와 유니세프 고액후원자로도 이름을 올리며 '세상에 돌려주는 삶'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활동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주지사



故 김영진 지사장 나눔자서전 헌정식 개최

제주지사는 3월 10일 황사평 천주교성지에서 故 김영진 지사장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나눔자서전 '제주적십자사의 꺼지지 않는 등불'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모의식과 함께 진행된 헌정식에는 유가족과 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영진 지사장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헌정된 자서전은 제주4·3, 6·25 전쟁, 동문시장 화재, 사라호 태풍 등 제주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한 그의 삶과 인도주의 정신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희망풍차 결연 400가구 깎두기 나눔활동

제주지사는 3월 29일 봉사회서귀포시협의회 주관으로 '희망풍차 결연가구 지원 깎두기 제작 및 나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적십자 봉사원 100여 명이 참여해 재료 손질부터 깎두기 담그기, 포장 작업까지 정성을 다해 참여했으며, 완성된 깎두기는 결연가구 400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봄철 결연가구의 식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며, 제주지사는 나눔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 민·관 재난안전 협력 강화 회의

제주지사는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행정시·읍면동 재난담당 공무원, 적십자 봉사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 협업 강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 분야 협력을 위해 처음 마련한 이 자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또한 공무원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구호장비 점검을 병행하며 전 단계 협력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적십자회비 36,298,324,395원

⊕ 정기후원 32,597,015,517원

*2026. 3. 1. ~ 2026. 5. 31.

프로그램 후원 내역(2026. 3. 1. ~ 2026. 5. 31.)

사회공헌협약 체결

주식회사 팜마트 코리아 (재)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사회협력 기부금품 내역

1억 원 이상	임대한 이봉구 빙그레 한국자산관리공사 교촌에프앤비(주) CJ ENM 김거석 LG 고려아연 삼성 한국수출입은행
1,000만 원 이상	김윤철 (재)후암문화재단 건설공제조합 에스파 닝 (주)엠오티
500만 원 이상	한화손해보험 GS리테일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현황

김성주 김선헌 홍라희 유종근 이세웅 김초원 김윤희 송광자 안재욱 이병헌 김은용 이수만 오길순 백낙환 박해진 이승엽 전중희 최창걸 허완구 김영자 한일량 이영건 이서례 홍경순 강옥채 최상준 김한 이선진 양문자 임형주 윤병철 남성희 김상태 김대곤 김문자 최용혁 김청옥 김인순 이동건 김창남 김경배 황규철 김정규 허규현 이경호 채종성 박희순 윤금영 최광주 박재규 김철 이재남 전병순 강석중 석승만 송길자 권오록 박재홍 이영철 신현국이성구 이용찬 유봉기 김택남 광경부 김일량 광희순 김한성 김정수 김종기 홍종욱 김민호 한영수 이상록 전범수 임복희 장성훈 신동삼 박종근 송재승 김상호 신용구 김은재 정용 이현건 강신혁 이영해 김홍식 황인성 민경용 홍은영 최충경 이주영 고광만 김희성 강영신 김철용 구한조 황세열 장예순 이상락 이언구 손덕임 구분무 최해상 윤옥자 정석관 박연차 김상열 김태영 정기호 권혁홍 박흥석 박병선 김범수 오현봉 강원선 이태호 한주식 송준기 황광자 백인계 허정 이승연 김태연 김무임 남종현 서의수 박장배 김교숙 김경희 신숙경 오연서 최신원 서봉숙 최위승 강난파 허용수 박재연 문명재 이선홍 신수봉 서정의 김형일 윤신일 홍성열 류시문 공봉애 박재규 박춘영 김영하 고진호 이희방 김대한 박윤미 임은영 정규진 임순이 김석주 성점화 변순자 김영식 김자경 이종욱 양창홍 한재승 한재현 김수관 도경희 이종호 조정애 신현봉 김진태 김영현 정채영 김봉옥 김재봉 정영화 강신애 이혜원 한광원 홍태희 문진석 강태선 김희월 윤미선 최영수 정성우 신정택 장대우 이승기 박순단 박명수 허인영 정요한 김홍수 정영진 김익기 주경숙 박승현 김남희 문은수 구정희 송경자 이현태 장영희 김경조 손창우 임경하 김우준 김애란 전종욱 박주환 유진종 이유선 황찬규 정진아 송옥희 오복진 서봉균 김철수 김병관 김홍국 김희철 장세욱 김선호 이강운 안응수 박재천 강중구 우현희 김미량 이준근 김영희 장오환 김효봉 장대식 정석현 이강원 박종태 정민해 안춘엽 김윤철 신성민 윤진수 이정훈 양인준 강은희 조현숙 변정섭 정찬률 강

영의 김영혜 황종현 현종협 조덕선 백낙서 이명희 최영아 서창희 정지선 조의영 이성용 김진구 송금순 이승윤 구제길 이기영 홍오성 김거석 김호연 김미 송은지 이정진 이정자 오연준 김난희 최경준 김미경 허연호 김화자 강소영 오나영 양한중 황영웅 박재상 송해교 김희선 강슬기 김민정 이태용 박정부 양시백 서정길 목광원 이미옥 배인호 정필곤 허종태 김재왕 김명돌 권혁수 윤병욱 한호동 윤경립 이승환 금종윤 현정은 정혜신 김남연 전해정 김진선 박순원 이후석 차영화 이원희 장상귀 강지현 한재승의 미래배우자 한재현의 미래배우자 한재승의 미래자녀 한재현의 미래자녀 신용일 김장연 서정길 최창권 강중구 이봉구 장상안 문현철 한미지 정성호 유화정 박영자 김경희 임대한 박영선 똬이용호 조희숙

*(2026년 5월 31일 기준, 339명)

특별회비(2026. 3. 1. ~ 2026. 5. 31.)

1억 원 이상

박영선 박영자 우리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5,000만 원 이상

(주)경남은행 (주)부산은행 주식회사 메세이상

1,000만 원 이상

이시영 iM사회공헌재단 황영웅 대한전문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 새벽건설(주) 제주문화방송(주) 영인산업(주) 동남전자부품(주) 대전도시공사 재단법인 서원나눔 고도화학(주) 강선희 강인귀 강선에 유성건설(주) 유선주 엘비인베스트먼트(주) 구암굴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김진아 인천도시공사 (주)세계전람 유진종 (주)하나은행 충청기관사업부 강영종 (재)화성장학문화재단 기전산업(주) 손창우 (주)덕산 전북은행 (주)제주은행 주식회사 도림아스타(DOLIM ASTAR) (주)행성사 S-OIL(주)온산공장 울산중앙청과시장(주) 사회복지법인 PHC큰나무복지재단 (주)메세코리아

500만 원 이상

대우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평화발레오 김미오 주식회사 강원랜드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나은병원 임규래 상동한의원 사단법인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 (주)부산은행 (주)케이에스엔지니어링 (주)지나컴퍼니 정순택 대전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강화군 김성조 한국동서발전(주) (주)산내들환경 (주)성전사 경상북도청 케이케이(KK)주식회사 석계아이엔디(주) 의료법인내경의료재단 주식회사 블루케이 HD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인터페스타 iM뱅크 비엔씨 (주)국민은행왕십리역지점

서울지사

1,000만 원 이상

(주)세계전람 주식회사 메세이상

500만 원 이상

(주)국민은행왕십리역지점 (주)메세코리아 금천사업 후원회 비엔씨

부산지사

5,000만 원 이상	(주)BNK금융지주
1,000만 원 이상	(주)행성사 (주)메세코리아 재단법인 서원나눔 손창우 새벽건설(주) 동남전자부품(주)
500만 원 이상	(주)인터페스타 (주)블루케이 정순택 (재)한국문화교 류재단/회장 이시영

대구지사

1,000만 원 이상	PHC큰나무복지재단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재) 화성장학문화재단 iM뱅크 iM사회공헌재단 유선주
500만 원 이상	박윤경 (주)평화발레로 최오란

인천지사

1,000만 원 이상	기전산업(주) 인천도시공사 인천여성봉사특별자문 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500만 원 이상	인천시 강화군청 (주)지나컴퍼니 (주)케이에스엔지니 어링 인천비전기업협회

울산지사

1,000만 원 이상	고도화학(주) (주)경남은행 울산중앙청과시장(주) S-OIL(주) 온산공장
500만 원 이상	한국동서발전(주) (주)대우여객자동차 김성조 (주)성 전사 (주)부산은행 의료법인내경의료재단 HD현대 중공업

대전·세종지사

1,000만 원 이상	하나은행 대전영업본부 대전도시공사 영인산업(주) 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대세남
500만 원 이상	대전상공회의소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김미오

경기지사

1,000만 원 이상	상동한의원
500만 원 이상	(주)우리들식품 사성환 덕정환경(주) (주)진산티앤씨 용인시협의회 선부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영곤 크리트산업주식회사 경기도콘크리트협동조합 성남 시협의회 재단법인성정문화재단 아주편한재활의학 과의원 월스기념병원 RCY동문회 경기도지부 군포 시협의회 통북동주민자치회 과천시협의회 양평군 협의회 의왕시 유한회사화삼골 양주시협의회 제종 길 유순덕 송탄협의회 장대우

강원지사

500만 원 이상	강원랜드
-----------	------

충북지사

1,000만 원 이상	농협충북본부 청주시지부
500만 원 이상	주식회사 메쎬

전북지사

1,000만 원 이상	전북일보 김용안
500만 원 이상	임규래

광주·전남지사

500만 원 이상	김현철
-----------	-----

경북지사

5,000만 원 이상	기아자동차
1,000만 원 이상	스틸싸이클(주) 동성환경산업(주) 한국원자력환경공 단 대현공업(주) 안동성소병원 경상북도개발공사 iM 뱅크 (재)운정국제교육재단
500만 원 이상	경북교육청 (사)경상북도의사회 경북문화관광 경 상북도청

경남지사

5,000만 원 이상	故이용호
1,000만 원 이상	우리수산(유진종 대표)

제주지사

1억 원 이상	(주)녹용축산유통
1,000만 원 이상	강영종 구암굴사재단법인장시영재단 제주문화방송 (주) (주)덕산 (주)도림아스타
500만 원 이상	주식회사 산내들환경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생생한 활동 소식과 다채로운 이야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RedCross〉소식지를 만나 보세요!



대한적십자사는 연 4회 <RedCross>를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RedCross> 웹진 구독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독 시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자라면 정보 최신화하기!



<RedCross>를 이미 받고 있던 후원자라면 회원 정보 최신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우편물 반송을 줄이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지를 신청한 경우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지를 받아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개별 발송이 필요한 경우 02-3705-3754로 문의

온라인 소식지
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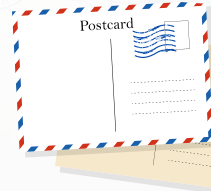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RedCross 2026년 봄호 독자 의견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소년적십자단 단원 200여 명이 천마산 자락에 나무 1만 그루를 심었다는 역사를 처음 알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식목일마다 어린 나무를 직접 심곤 했는데, 그때 심은 나무들이 지금은 울창하게 자라 있을 걸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7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_강주찬 부산시 해운대구



겨울 동안 움츠렸던 관절과 근육이 갑작스러운 활동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무릎 부상의 주된 원인이라는 대목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매년 봄만 되면 무릎으로 고생했던 터라 더욱 유익하게 읽었어요. 소개된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건강한 무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 부탁드립니다.

_전예빈 의정부시

소방관들이 구조에 집중하는 동안 적십자 봉사원들이 곁에서 밥을 짓고 심리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구조와 구호, 두 역할이 맞물려야 재난 현장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다시 실감했습니다. '인도·박애·봉사'의 정신이 소방 가치와 곁이 닿는다는 표현도 인상 깊었고요. 두 기관이 앞으로도 더욱 단단한 파트너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_김석범 강릉시 교동

급식차량, 세탁차량, 샤워차량까지 7종이 전국 지사에 분산 배치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2025년 산불 때 보름간 10만 명의 식사를 책임졌다는 대목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고요. 국내 재난 현장을 달리던 구호차량이 이제 튀르키예까지 건너가 이재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니, 대한적십자사가 참 자랑스롭습니다.

_이수민 전주시 완산구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후원자 코너

대한적십자사 헌혈 캐릭터, '블러드 프렌즈(Blood Friends)'를 소개합니다!

블러드 프렌즈는 생명 나눔의 가치를 친근하게 전하며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여러 혈액시티를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블러드 프렌즈와 함께 일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헌혈 나눔에 동참해 보세요.



독자 참여

QUIZ

후원자 코너 큐알코드를 통해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나눔이

블러드 프렌즈 리더

누군가 헌혈로 사랑나눔을 실천한 순간, 태어난 요정 나눔이! 블러드 프렌즈의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친구들과 함께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한 혈액시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쓰고 다니는 혈액모양 모자와 사랑봉은 나눔이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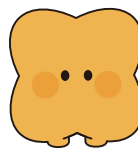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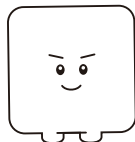


적혈구 적이

블러드 프렌즈 집배원
산소를 혈액시티 곳곳의
필요한 곳에 전달해주는 역할

백혈구 백이

블러드 프렌즈 경찰관
침입한 세균들과 싸워서
혈액시티를 보호하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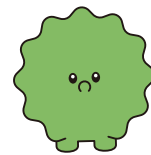


혈장 짱이

블러드 프렌즈 택배 배달원
영양분 및 전해질 등을
적재적소에 운반해주는 역할

혈소판 술이

블러드 프렌즈 119대원
상처를 통해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



혈액시티에서 살고 있던 가족 적이, 술이, 백이, 짱이를
만나게 된 나눔이가 친구들과 함께 결성한 000 000는?

1. 블러드 프렌즈

2. 베스트 프렌즈

3. 적십자 프렌즈



6명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2만 원

*큐알 코드를 통해 퀴즈의 정답과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

고객 만족도 조사

<RedCross>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코너를 통해 2026년 <RedCross> 여름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재난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빛이 되어주신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

1000억원 이상

SAMSUNG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나눔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의 기부가 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 지금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보세요.



대한적십자사
문의) 02-3705-3741~45

작성기준: 본 데이터는 26.1.1.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한적십자사 기부 이력이 있는 법인, 단체(개인, 개인사업자 제외)로서, 본점과 지점으로 나눠진 공공기관과 단체는 각 대표 기관(본점)으로 기부금액을(10억원 이상) 합산하여 작성되었습니다.